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 지역 상권에 따른 세종특별시 중학생의 방과 후 활동 분석

2016. 10. 24

김진현, 박지민, 변준영, 박성진, 박지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지역 상권에 따른 세종특별시 중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분석

김진현, 박지민, 변준영, 박성진, 박지수

## 1. 탐사의 필요성

### 가.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의 필요성은 세종시가 새로 출발하는 도시이며 세종시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생활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 패턴은 앞으로 점점 고착화될 것이며 그것은 학생들의 학업역량, 창의성 등과 같은 기본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우리는 학교 통학권 내의 학생 이용 시설이 세종중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였다. 예를 들어 주변상가에 학원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종례 후 귀가를 하지 않고 바로 학원에 가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이 탐사를 진행하여 통학권 내의 학생 이용 시설과 중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의 관계를 알아내면 앞으로 지어질 더 많은 세종시의 학교 주변의 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나. 연구 문제 선정의 이유

원래 세종시 중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직접 답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통학 시간이 짧고, 주요 통학로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등교할 때와 달리 학생들이 하교할 때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동선이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교 주변 시설들이 세종시 중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 다. 문제 접근

세종특별시는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 모습이 많이 다른데, 특히 한솔동과 아름동의 모습이 상당히 대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 한솔중과 아름중을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방과 후 행동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 설문조사와 취재한 3기의 행동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학생의 활동범위를 잡고 범위내의 상권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권의 점포종류별 분류와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2. 탐사 과정

### 가. 설문조사

A팀(김진현, 박성진, 박지수)과 B팀(박지민, 변준영)으로 조를 분할한다.

#### 1) A팀(김진현, 박성진, 박지수)

A 팀은 첫째 날 아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 설문지를 완성한 후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교 시간(16:30~17:10)에 아름중학교 교문 앞에서 설문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그려진 종이를 나누어준다. 설문지에 있는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방과후 주로 어디를 가는지 선택해주세요.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 집

☐ 교육시설 (학원, 정독실 등)

☐ 문화및 여가 시설 (체육관, 영화관, 도서관 등)

☐ 오락및 편의 시설 (노래방, PC방 등)

☐ 방과후활동

☐ 그외

2. 방과후 주로 가는 장소에서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관찰한 메모

#### 2) B팀(박지민, 변준영)

B팀은 첫째 날 등하교 시간에 한솔중학교 재학 중인 3기 예비신입생을 만나 통학로를 파악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솔중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조사한다. 등하교 시간 사이에는 한솔중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한솔동이 주로 어떤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름동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촬영한다. 또한 3기 학생을 통해 A팀이 제작한 설문지의 링크를 한솔중 학생들에게 알려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상권 조사

아름동과 한솔동/새롬동의 상가에 입점한 상점들 중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상점 종류를 선정하여 카페/분식,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 유흥업소(PC방, 노래방 등)으로 나누어 아름동과 한솔동의 상권을 분석하였다. A팀(박성진, 박지수)은 아름동의 해피라움, B팀(김진현, 박지민, 변준영)은 한솔동에서 탐사를 진행하였다.

#### 1) A팀(박성진, 박지수) - 아름동

A팀은 탐사 둘째 날 해피라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건물의 인포메이션을

참고하여 입점한 상점들을 확인한다. 그 후 건물들을 둘러보면서 인포메이션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문을 닫은 상점들을 알아보고 연구과정에서 제외한다.



2) B팀(김진현, 박지민, 변준영) - 한솔동, 새롬동 주변, 아파트 주변 상가

B팀은 탐사 둘째 날 한솔중, 새롬중 학생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주변의 상가들을 둘러보면서 A팀과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을 통해 입점해있는 상점들을 확인한다.

### 3. 탐구 결과

가. 설문조사 -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1) 아람중학교

오른쪽 원그래프와 같이 아람중학교 학생들은 근처에 해피라움이 있어 집(35.7%)보다는 교육시설로 향하는 학생들이 4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집과 교육시설 외에도 문화 및 여가시설, 교육 및 편의시설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총 21.4%)



2) 한솔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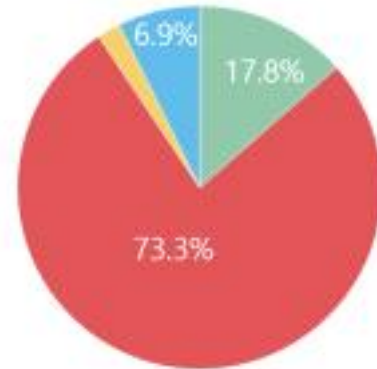
아람중학교 학생들과 달리 한솔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 바로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고(70.9%), 집과 교육시설(20.8%)을 제외한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8.9%)의 비율이 아람중학교에 비해 낮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상권과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 나. 상권 분석

### 1) 아름동 해피타운

아름동의 상권은 해피타운 건물 4개, 작은 건물 4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101개의 카페, 분식점, 학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둘러본 결과 73.3%의 압도적으로 학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카페와 분식점이 17.8%, 유흥업소도 6.9%로 낮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많이 학생들의 지역상권 이용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름동의 경우 더 많은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이 학생을 학원가가 번창한 해피타운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한솔동, 새롬동 상가

한솔동, 새롬동의 상권은 아름동과는 달리 주변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았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비교한 결과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다. 부동산이 한솔동 상권의 70.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원이 12.3%로 아름동의 학원과 한솔동의 부동산 비율에 비하면 훨씬 낮았다. 이렇게 한솔동은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미약하여 주변 상권 이용률이 29.1%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르게 귀가하였다. 그리고 한솔동 같은 경우 주변의 신호 체계나 개발 단지 정리 등이 끝나지 않아, 청소년 우범 지역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50%나 되었다.



## 4. 결론 및 제언

가. 아름동은 주변에 교육 시설과 각종 카페나 분식, 유흥업소들이 많아 학생들의 방과 후 동선과 목적지가 다양하다.

나. 한솔동은 주변 상권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였고, 공사 지대나 청소년 우범 지역이 비교적 많아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향했다.

다. 지역 상권에 시설, 이용 수가 차이 나게 되면 해당 상권의 경제력 뿐 아니라 학생의 쏠림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쏠림을 방지하려면 균등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활동 후기

### 김진현

인문자연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게 다가왔던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우리의 연구는 사람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얻어 내야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름중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 조사지와 연결된 QR 코드를 나누어 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단 14명만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한솔중학교로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아름중학교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설문 조사지 문항을 2문항으로 줄이고 SNS를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였더니, 24명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었다. 무식하게 발로 뛰어서 얻은 응답보다 앞서서 SNS를 활용하여 얻어낸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투표와 같은 설문 조사도 SNS를 잘 활용하면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세종특별시가 잘 계획된 계획 도시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우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편의 시설이 점차적으로 생기지만, 계획 도시의 경우 처음부터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이 위치할 것인지 계획된 후 이어지는 도시이다. 연구 결과 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주로 위치하는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 대부분이 바로 집으로 향하였지만, 학교 주변에 여러 상가가 위치하는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 일정이 집인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세종특별시는 계획 때부터 기능별로 지역을 나누었다. 세종특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어 그 기능의 차이가 학생들의 방과 후 일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문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 박지민

- 세종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연구 결과가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변준영

- 세종시를 바로 돌아다녀 보니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뿐, 점점 더 살기 편하고 적합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연구한 결과가 세종시 학생들의 문화 생활과 여가 생활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 박성진

- 이번 탐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설문조사의 부분이었다. 실제로 우리 연구는 전수조사에 가까울수록, 설문문항이 늘어날수록 연구자체의 신뢰도가 높아나는 연구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동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450여장의 설문참여 QR코드를 돌렸지만 들어온 설문은 단 14개였다. 1/30 비율의 사람만

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다. 만약 계획을 세울 때 일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표본부족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라면 좀 더 안정적인 주세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에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은 다행이라 해야 하겠다. 실제로 상권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솔동쪽에서의 방과 후 귀가비율이 높았고 학원과 여러 학생 편의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상가가 가까운 아람중학교에서 방과 후 상가로 향하는 비율이 높았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제쳐두더라도 우리는 불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행복도시내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변의 상권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탐구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같은 1기 학생들끼리는 작년 SA와 같은 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서로 많이 겪어본 사이가 되었지만 후배들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1학년 친구들이 상상 이상으로 책임감이 있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이 인문자연탐사라는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내용 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과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세종시 학생들의 일상 전반을 탐구할 것이었다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 많이 부딪치면서 좀더 작고 구체적인 주제로 마모되게 되었다. 이로서 실제로 진행 가능한 주제를 설정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 박지수

-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참여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아람중학교 교문 앞에서 열심히 QR코드가 있는 종이를 나누어 주었지만, 나누어준 종이 수에 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준 학생들의 수가 매우 적었다.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준 사람이 몇 되지 않아 안타깝기도 했지만, 바쁘게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준 14명의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탐사 기간 동안 세종시 보도를 걷다보니 거리가 깨끗했고, 아파트 단지도 학교와 가까워서 살기 좋은 도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서 아람중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던 설문 종이가 깨끗했던 보도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쓰레기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세종시민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탐사 기간 중에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팀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다 보니 지역 상권과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의 관계를 분석해보게 되었고, 괜찮은 결과를 도출해낸 것 같아서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졌다. 또한 직접 탐사를 갔다는 점에서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